

“충청남도 물관리 방안 워크숍 개최”

- 물통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돼야 -



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“물관리 대책본부” 설치와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월 12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
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‘물 통합관리의 장기적 목표 및 방향제시’ 수

질총량관리센터 김영일 책임연구원의 ‘물 통합관리 및 수질총량관리제 추진방안’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.

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수량과 수질관리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 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였는데,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단계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차년도 계획수립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역할이 강조되었고, 유역관리를 위한 현재 추진현황 및 단계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, 수질오염총량센터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.